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선사 문화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

01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하면서 세계 각지로 이동하였다. 구석기인들은 뿔석기 등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무리 지어 살면서 채집과 사냥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이나 여러 가지 뿔석기를 통해 당시 사람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세계사 128쪽 01

*** 스페찌르개**

자루에 박아 창으로 사용한 뿔석기로 구석기 후기에 등장하였다. '스베'란 칼, 낫, 호미 등의 자루 속에 박히는 부분을 말한다.



▲ 동굴곰의 아래턱 뼈(충북 청주 출토)



▲ 아슐리안 주먹도끼 (프랑스 출토)

▶ 주먹도끼(경기 연천 출토)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이 있으며,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 짝개(강원 강릉 출토) 나무를 다듬거나 짐승의 뼈를 찍는 데 사용하였다.

▲ 굽개(충북 청주 출토)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저미는 데 사용하였다.



▲ 스페찌르개 (충북 단양 출토)

▲ 구석기 유적지 분포 ● 제주(일레뫼 동굴)

▼ 구석기 시대 복원 모형 (경기도 연천 전국 선사 박물관)



신석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

02

신석기 시대에는 다양한 용도의 간석기가 만들어졌고, 토기도 제작되어 식량의 저장과 조리에 사용되었다. 또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됨으로써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사 93쪽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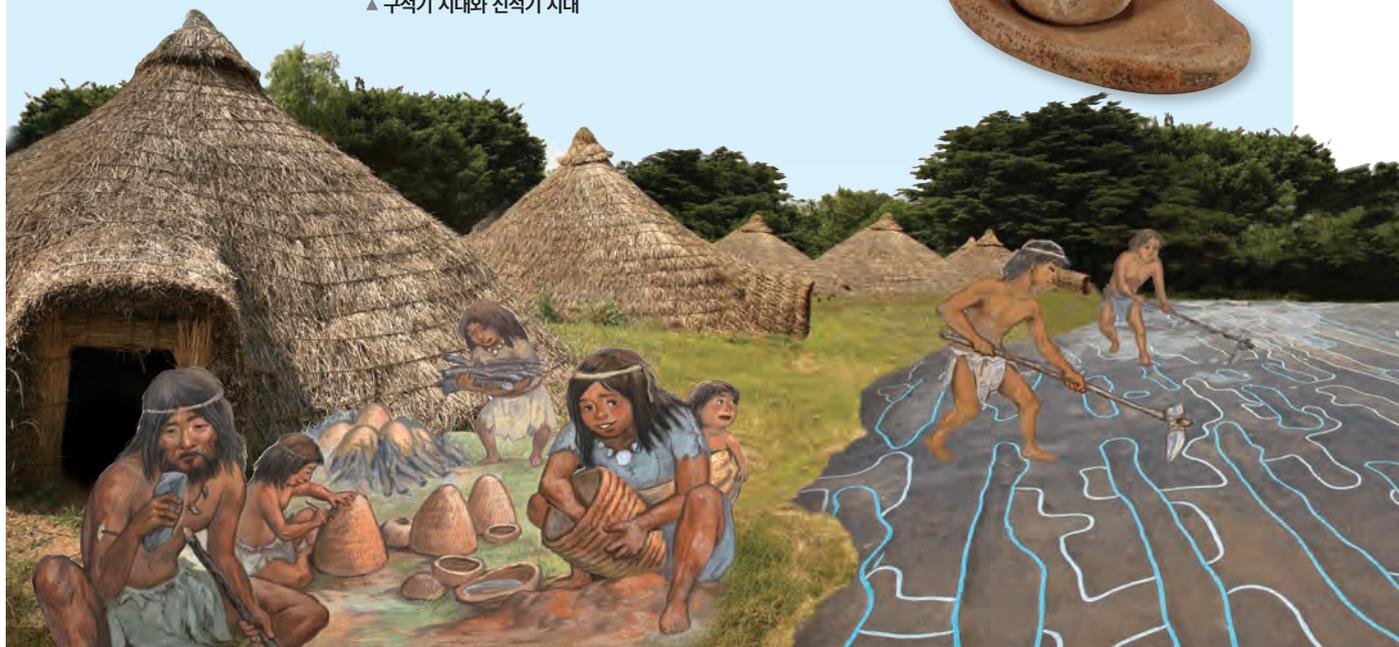
활동 01

농경의 시작으로 나타난 인류 사회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구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도구	뿔석기	간석기, 토기
경제	사냥, 어로, 채집	· 사냥, 어로, 채집 · 농경과 목축 시작(신석기 혁명)
사회	이동 생활	정착 생활
주거	동굴, 막집	움집(강가, 바닷가)

▲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 신석기 시대 움집을 복원한 모습(서울 암사동)과 밭 흔적(강원 고성 문암리)

고조선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성장

청동기·철기 시대의 문화

01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확대되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사유 재산제가 발달하고 빈부 차이가 생겨났다. 아울러 정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이후 철기가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 교류가 확대되고 사회 통합이 촉진되었다.

동아시아사 94쪽 01

*** 목책과 환호**

나무 말뚝을 박아 세운 울타리와 마을을 둘러싼 인공 도랑이다. 방어용 시설로 청동기 시대에 정부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 반달 돌갈(경기 여주 출토)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 * 목책과 환호로 둘러싸인 청동기 시대의 마을(국립중앙박물관)



◀ 팔주령(전남 회순 출토)
손에 들고 흔들던 의식용 도구로 추정된다.

▶ 거친무늬 거울 (충남 아산 출토)



◀ 간두령(경북 경주 출토) 청동 방울의 일종이다.



▲ 민무늬 토기(경기 하남 출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로, 쓰임새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였다.

▶ 비파형 동검(중국 랴오닝성 출토) 중국 랴오닝성과 한반도에 서 널리 출토된다.

청동기 시대

기원전 2333(『동국통감』 기준)
고조선 건국

기원전 20세기~기원전 15세기경
만주,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 보급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 중국 제와
교역

기원전 5세기경
만주와 한반도
철기 사용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 연과 대립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02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여 만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혔다. 위만 조선 때 이르러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으나 한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한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활동 02

위만 조선 성립, 한 무제의 침입 등 고조선의 정치적 변동이 한반도 남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론해 보자.

■ 고조선의 성장

■ 탁자식 고인돌 분포 지역
■ 비파형 동검 분포 지역
■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



▲ 탁자식 고인돌(중국 랴오닝성)

▶ 미송리식 토기 (평북 의주 출토)

◀ 비파형 동검(황해 신천 출토) 손잡이와 검날을 따로 제작한 후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환웅 부족
(천손 사상, 홍익인간 이념)

곰 토tem 부족
(토착 세력)

↓ 건국 ↓

정치	단군왕검(제정일치 지배자)
경제	농경 사회, 청동기 문화 발달
사회	계급 사회

▲ 단군 신화의 역사적 의미

8조법

(고조선에는) 백성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한서』 지리지 -

▲ 생명 존중, 농경 사회, 사유 재산제 발달, 계급 사회의 특징이 나타난다.

철기 시대의 사회 변화



▶ 잔무늬 거울(강원 양양 출토)



▶ 철제 무기(좌)와 농기구(우, 영남 지역 출토)

▼ 세형 동검(강원 횡성 출토)

주로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출토되며,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한다.



▶ 거푸집(평남 대동 출토)



▶ 농경무늬 청동기(국립중앙박물관) 인물, 농기구, 경작지 등을 선으로 묘사해 당시의 농경과 의례를 보여 준다.

중국과 교류



▶ 한자 사용을 보여 주는 붓(경남 창원 다호리 출토)



▶ 부조예군 도장(평양 출토) 한이 토착 지배 세력에게 준 도장이다. 한자로 '부조예군'이라고 새겨져 있다.



▶ 명도전(평북 위원 출토, 좌)과 반량전(경남 사천 녹도 출토, 우) 철기 시대에 중국과 활발히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철기 시대

기원전 194
위만 조선 성립

기원전 108
고조선 멸망

기원전 1세기경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성장

고조선의 변화

조선 후(侯) 준(준왕이) 연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자, 그 측근 신하와 공인들을 거느리고 달이나 한(韓) 땅에 들어가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불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의 성립과 그 특징

고구려, 백제, 신라는 주변을 정복하면서 성장하였고, 이를 주도한 왕의 권력도 점차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삼국은 정복한 영토를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갖추면서, 연맹체 국가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 율령(律令)**
율(律)은 형벌, 령(令)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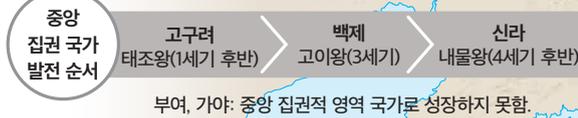
*** 이사금**
신라 초기의 왕호로 연장자, 계승자라는 뜻이다.

*** 골품**
지배층을 성골·진골(왕족)과 6~1등급으로 구분하였던 신라의 신분제이다. 이후 성골은 소멸하고 3~1등급은 평민으로 간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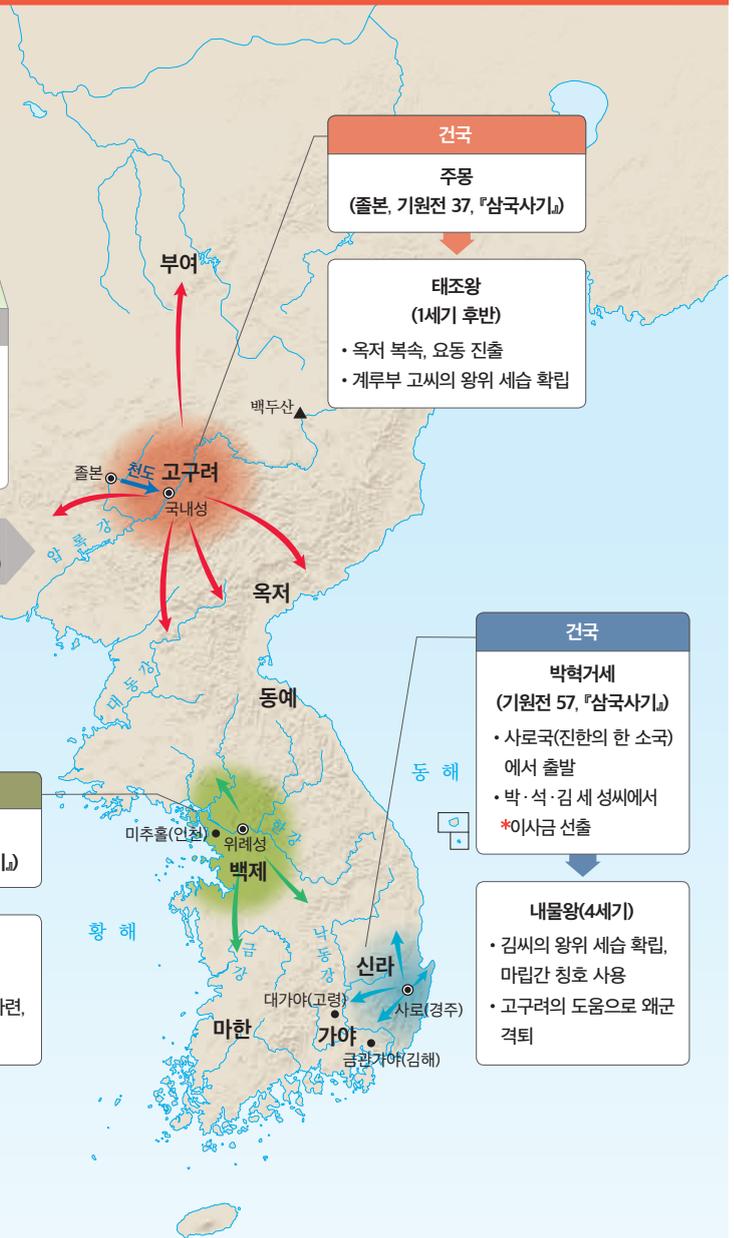
활동 03
삼국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찾아보자.

01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



▲ 백제 초기에 쌓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모형(한성백제박물관)



삼국의 통치 체제

귀족 회의 발달

- 고구려: 제가 회의
- 백제: 정사암 회의
- 신라: 화백 회의(만장일치제)

관등제 정비

- 고구려: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
- 백제: 좌평 이하 16관등
- 신라: 이별찬 이하 17관등

지방 행정 조직 정비

- 지방관 파견(군사 지휘관 역할 겸임)
- 말단 행정 구역은 토착 세력(촌주)이 행정 실무 담당

엄격한 신분제

-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보다 자신이 속한 친족의 신분에서 결정
- 신라: 골품 제도 운영



◀ 천정대(충남 부여) 백제에서 귀족들이 재상을 뽑던 장소로 '정사암'이라고도 한다.

등급	관등명	골품				복색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1	이별찬	■				자색
2	이 찬	■				
3	잡 찬	■				
4	파진찬	■				
5	대아찬	■				
6	아 찬		■			비색
7	일길찬		■			
8	사 찬		■			
9	급별찬		■			
10	대나마			■		청색
11	나 마			■		
12	대 사				■	황색
13	사 지				■	
14	길 사				■	
15	대 오				■	
16	소 오				■	
17	조 위				■	

▲ *골품과 관등표(통일 신라)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백제의 발전 (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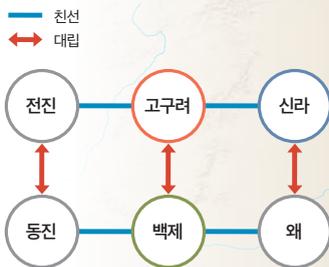
02

4세기 후반 삼국은 주변 지역을 통합하고 영역을 맞닿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였다. 한강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한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전연과 백제의 연이은 공격으로 위기를 겪었다.

*** 전연**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요동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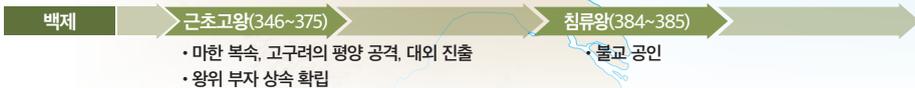
(전연의) 모용황이 큰 무리를 이끌고 침략해 오니 우리 병력이 크게 패하였다. …… 모용황은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싣고, 창고 안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을 약탈하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았다. 또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허물어뜨리고 돌아갔다.
-『삼국사기』-

▲ *전연의 침입과 고구려의 위기



▲ 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 4세기 백제의 발전



고구려의 팽창 (5세기)

03

4세기 후반 고구려는 소수림왕의 개혁으로 나라 안팎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대를 거치며 국력이 크게 팽창하여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 남북조**
5세기 초~6세기 말 한족이 중국 강남에 세운 왕조(남조)와 북방 민족들이 화북에 세운 왕조(북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활동 04
5세기 고구려의 팽창이 백제, 신라, 가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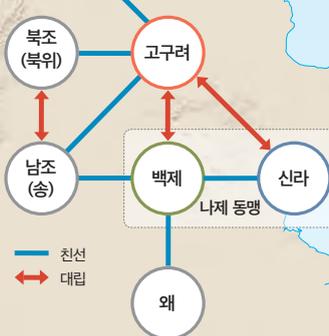


▲ 4~5세기 고구려의 발전



▲ 삼십총 기마 전투도(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 철제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한 고구려 개마 무사의 모습이다.

▼ 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부여 (494) 부여성

거란

후연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

평양 천도(427)

한성 함락 → 백제의 웅진 천도(475)

신라

가야

대가야(고령)

후기 가야 연맹 형성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진출 방향

장수왕 말의 남쪽 경계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독자적 연호 사용

고구려 = 신성한 곳

천손 의식

대왕 호칭 사용

▲ 오회분 4호부 천장의 황룡도(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 동아시아에서 황색은 중앙을 상징하며 용은 군주를 상징한다.

신라의 성장 (6세기)

04

신라는 6세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가 활발해졌고, 가야를 완전히 흡수하였다.

활동 05

나제 동맹이 결렬되는 계기가 된 사건을 말해 보자.



진흥왕 순수비(북한산 비봉)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기 전의 모습이다. 신라가 한강 하류를 장악한 사실을 보여 준다.



▲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나제 동맹이 결렬되었다.



▲ 6세기 백제의 중흥 노력과 신라의 발전



▲ 단양 신라 적성비(충북 단양) 진흥왕이 한강 중상류 지역인 적성을 차지하고 세운 비석이다.

가야 연맹의 발전

05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가야는 철기 문화와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소국들의 독립성이 강하여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 가야 연맹의 영역과 대외 교류

가야 연맹의 변천

- 3세기: 전기 가야 연맹 형성 (금관가야 중심)
- 4세기 말 ~ 5세기 초: 고구려군(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타격 → 전기 가야 연맹 해체
- 5세기 후반: 후기 가야 연맹 형성 (대가야 중심)
- 6세기:
 - 금관가야,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
 - 대가야,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



▲ 가야 금동관(부산 북천동 출토)



▲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 (국립경주박물관) 철갑으로 무장한 말과 무사를 표현하였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06

통일 제국 수·당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고구려를 침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격퇴하였다. 한편,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던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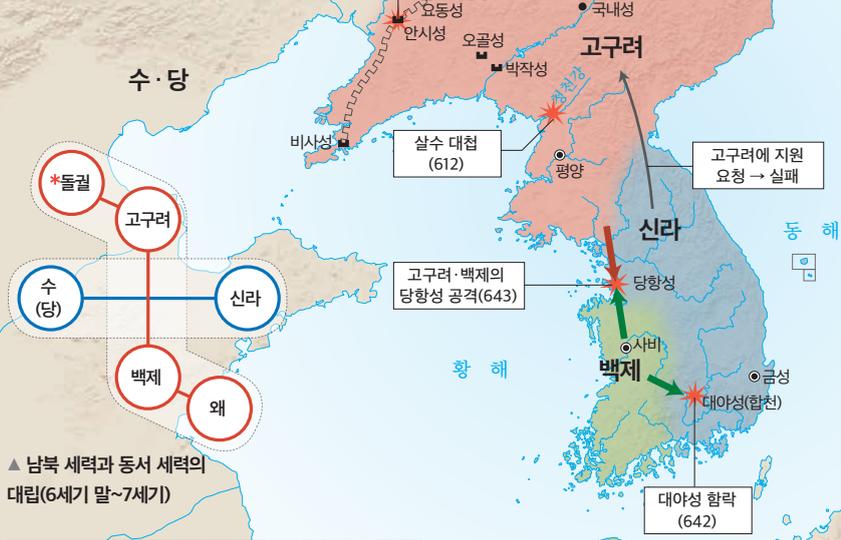
세계사 134쪽 05

*** 돌궐**
돌궐은 한때 고구려와 동맹 관계에 있었지만 수에 굴복한 뒤 고구려 침공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 살수 대첩**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수의 대군을 살수(오늘날의 청천강)에서 크게 격파한 싸움이다.



▲ 백암성(중국 라오닝성) 당을 견제하며 세운 고구려 천리장성의 일부이다.



▲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6세기 말~7세기)



▲ 당항성(경기 화성 당성) 신라가 중국과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다.

(진평왕) 30년에 왕이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원광에게 명하여 '결사표(군사를 청하는 글)'를 짓게 하였다.
- 『삼국사기』 -

▲ 수에 군사를 요청한 신라

고구려와 수의 전쟁	598	고구려의 요서 공격
	598	수 문제의 침공
	612	수 양제의 1차 침공 → *살수 대첩으로 격퇴
	613	수 양제의 2차 침공
고구려와 당의 전쟁	614	수 양제의 3차 침공
	645	당 태종의 1차 침공 → 안시성 싸움 승리
	647	당 태종의 2차 침공
	661	당 고종의 1차 침공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과정

▶ 정변으로 집권한 연개소문 (?~666) 중국 경극에 나오는 연개소문의 모습이다. 당에 강경책으로 맞선 그를 두려운 존재로 묘사하였다.



▶ 나당 동맹을 추진한 김춘추(태종 무열왕) 고구려와 협상에 실패한 후 당과 손을 잡았다.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 통일

07

신라는 나당 동맹을 맺은 후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렸다. 그 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

동아시아사 97쪽 03

활동 06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설명해 보자.



대항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삼한을 한집으로 만들었으며 백성은 두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조금 편안한 상태는 되었습니다.
-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

▶ 무열왕릉비 이수(경북 경주) 태종 무열왕의 업적을 기념하며 세운 것인데, 머릿돌(이수)과 거북 모양 받침(귀부)만 남았다.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682 신라, 국학 설립 689 신라, 녹읍 폐지 698 발해 건국 732 발해, 등주 공격

통일 신라의 발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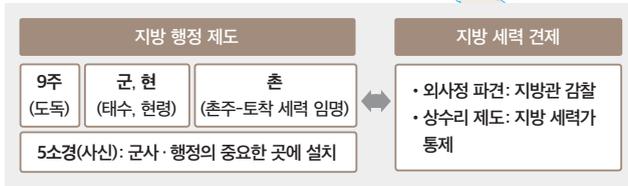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기반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 녹읍과 관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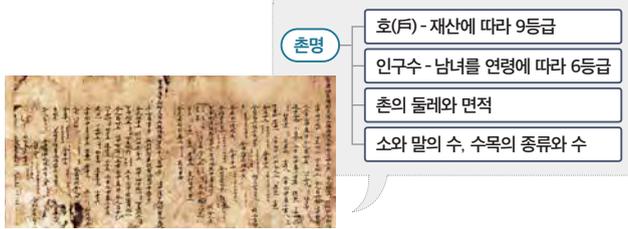
녹읍은 국가에서 관리(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 조세 수취와 거주민의 노동력 징발이 가능하였다. 반면 관료전은 조세 수취만 가능하였다.



▲ 신원왕 시기의 정치 체제 개편



▲ 신라 지방 제도



▲ 신라 촌락 문서(8세기, 일본 쇼소인) 서원경(청주)이 관할하는 촌 등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장적이라고도 한다. 3년마다 다시 기록하여 조세와 역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호구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토지의 생산력이 낮았던 상황에서 노동력이 주요 수취 대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 경주 동궁과 월지(북원) 문무왕(674) 때 조성된 신라 왕궁의 별궁으로 통일 이후 안정된 신라의 국력을 보여 준다.



▲ 9주 5소경 5소경에는 옛 고구려, 백제 귀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신라 말의 사회 변동

02

신라 말에는 골품제와 수취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는데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지방 호족이 성장하였다.

*** 호족**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중앙 귀족, 대외 무역에 종사하며 세력을 키운 해상 세력, 지방 군사 요충지에서 성장한 군진 세력, 지방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 등이 있다.

활동 07

신라 말에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기원전 57	654	780	935
상대	중대	하대	
박혁거세	진덕 여왕	무열왕	해공왕
	신덕왕	선덕왕	경순왕
박, 석, 김 세 성씨에서 왕 선출 → (내물왕) 김씨 왕위 세습권 확립	무열왕계 직계 자손의 왕위 계승	왕위쟁탈전 (150여년간 20명의 왕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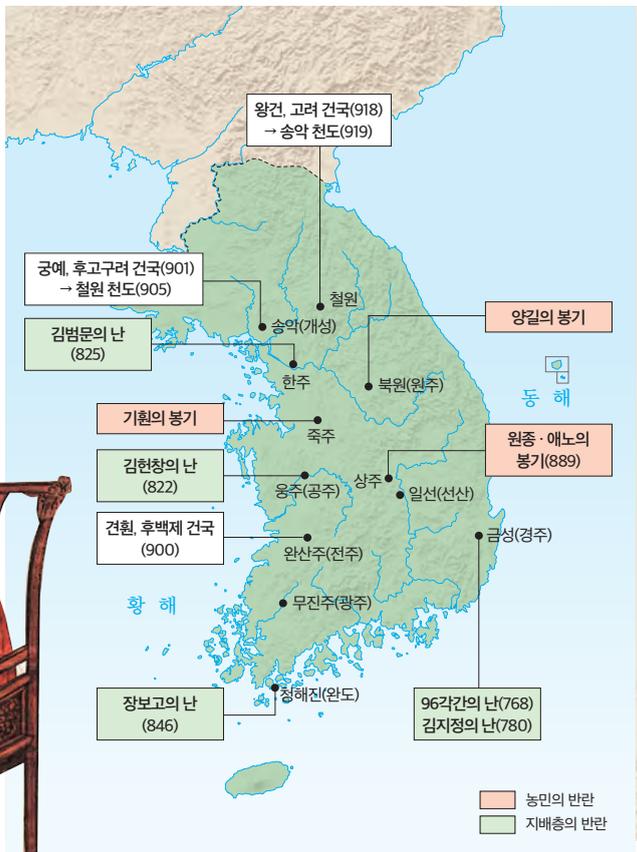
▲ 『삼국사기』의 신라사 시대 구분



▲ 명주군왕릉(강원 강릉)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낙향한 김주원의 무덤이다. 신라 말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여러 유형의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 해인사 묘갈상탑지 (최치원, 경남 함천 출토)
"나라 안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 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쓰여 있다.

▼ 최치원 영정 당에 유학했던 6두품 학자들은 유교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였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03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고구려 문화의 전통 위에 당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9세기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10세기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후 그 유민 일부는 고려에 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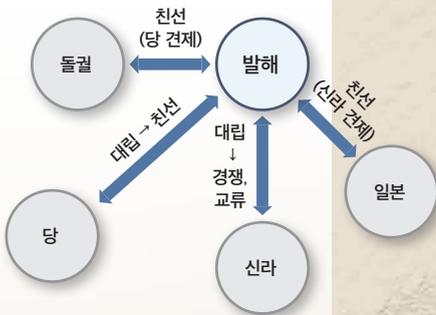
▲ 발해 고왕 대조영(서울대박물관)

부어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유득공, 『발해고』-



▲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였으나, 유교 이념이 반영된 6부 명칭과 권력이 정당성에 집중된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



▲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일본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고려'라고 표현하였다.



▲ 용머리상(중국 헤이룽장성 출토)



▲ 발해의 온돌 유적(러시아 크라스키노) 고구려와 같은 형태이다.

◀ 정효 공주 묘지석(중국 지린성 출토) 글귀 중에 문왕을 '황상'이라 칭하였고, '대흥'이라는 연호가 등장한다. 이는 발해가 당과 대등한 황제국임을 드러낸 것이다.

▶ 발해 수도 상경성(평면도)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 건설하였는데, 그 규모는 당의 장안성에 버금갈 정도였다.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유학의 역할

01

유학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사상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삼국은 물론 남북국에서도 유학을 장려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라 말에는 유학이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활동 08

삼국이 유학 교육을 장려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삼국의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려: 태학 설립, 경당(한학, 무술 교육) 백제: 오경박사(유교 경전, 일본에 유학 전파) 신라: 임신서기석(청년들의 유학 공부)
남북국의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신라: 국학 설립, 독서삼품과 실시 발해: 주자감 설립, 유교적 6부 명칭

▲ 삼국과 남북국의 유학 교육



▲ 골품 제도와 유교 정치사상 비교

(원성왕 4년, 788)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벼슬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춘추좌씨전』이나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을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사람을 상품으로 하고 『국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을 중품으로, 『국례』와 『효경』을 읽은 사람을 하품으로 삼았다. ……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때에 이를 개정하였다. -『삼국사기』-

▲ 독서삼품과 국학에서 배운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였다.



천신 신앙과 불교

02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 *천신 신앙은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국가 신앙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교는 삼국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었으며, 지배층에서 점차 백성에게 확산되면서 사회 통합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천신 신앙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믿었던 신앙이다. 지배자는 자신을 하늘(천신)의 자손으로 내세우며 권위를 강화하였다.

■ 천신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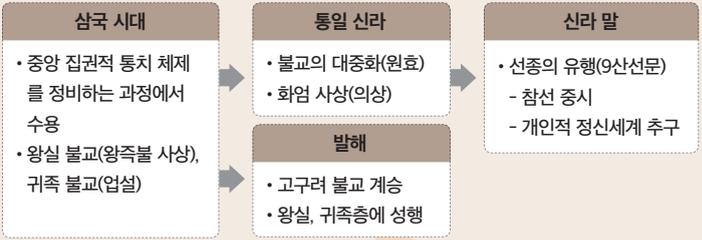
- (부여) 제천 행사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이때에는 형옥(刑獄)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준다.
- (고구려)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隧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 지낸다. -『후한서』-

▲ 부여, 고구려 등 여러 나라는 해마다 풍요를 기원하거나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국동대혈(중국 지린성 지안)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 동맹 때 왕과 신하가 모여 제사 지내던 곳으로 전해진다.

■ 불교의 발달



▼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전남 화순) 신라 말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유행하였다.



도교와 풍수지리설

03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도교는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신라 말에 유행한 풍수지리설은 예언적인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자연환경이 국가나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되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	풍수지리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민간 신앙, 도가, 신선 사상 등이 융합된 종교 •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추구, 토착 신앙과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물,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 • 예언적 도참사상과 결합 • 신라 말에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 • 예술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성(경주) 중심의 국토관 변화 • 호족이 세력을 키우는 데 활용



▲ 백제 산수무늬 벽돌(충남 부여 출토) 도교의 영향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 「백호도」(부여 능산리 고분군) 도교에서는 청룡(동), 백호(서), 주작(남), 현무(북)를 방위신으로 여긴다.



▶ 백제 금동 대향로(충남 부여 출토) 불교와 도교 사상이 반영된 걸작으로 덮개의 조형물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강서 고분의 「현무도」 (남포 강서)

불교 예술의 발달

불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 인도의 다양한 문화가 삼국에 들어와 불상, 석탑 등 찬란한 고대 예술이 꽃을 피웠다.

▼ 석굴암 본존불(신라 중대) 완벽한 균형미와 조화미 속에 불국토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신라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



◀ 익산 미륵사지 석탑(전북 익산) 목탑 양식의 석탑으로 석탑 양식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높이: 약 14.2m



높이: 약 10.8m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옥개석
탑신
상층 기단
하층 기단



◀ 발해 영광탑(중국 지란성)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발해 탑으로 당의 영향을 받은 전탑(벽돌탑)이다.

높이: 약 13m

◀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경북 경주) 균형감이 돋보이는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3층 탑이다.



▲ 발해의 이불병좌상(중국 지란성 출토) 광배의 모양 등에서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 철원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신라 하대) 신라 말에는 호족의 성장과 함께 규모가 큰 철불과 석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삼존상(백제) 삼국 시대에는 친근감 있게 미소를 띤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 고구려의 금동 연가년명 여래 입상(경남 의령 출토) 북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직선적이고 강렬한 고구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고려의 통치 체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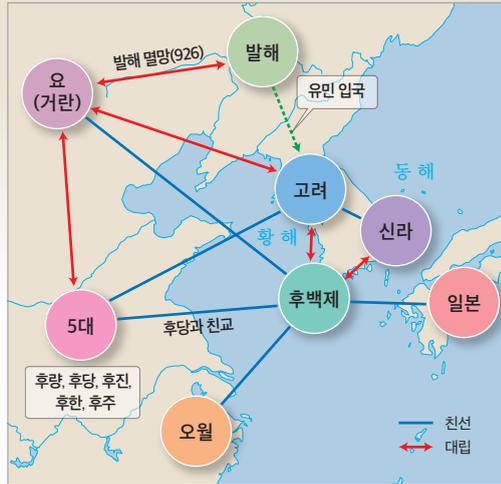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하였다. 이후 광종, 성종 대를 거치면서 유교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갖추어졌다.

*** 취민유도**

백성에게 조세를 거둘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활동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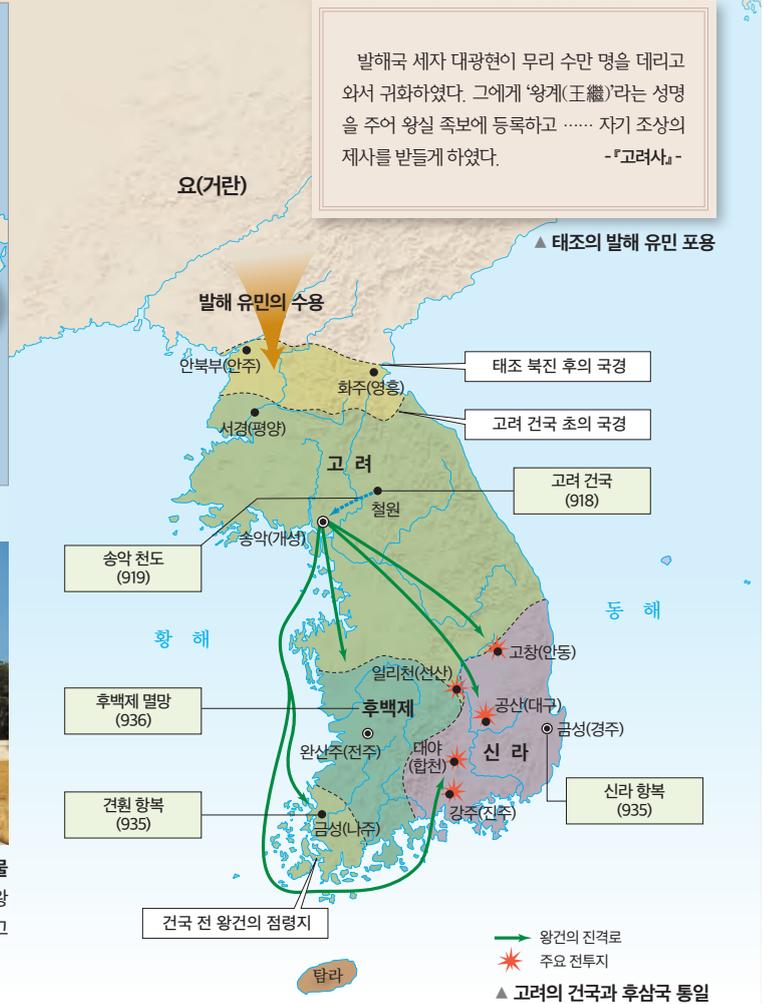
태조 왕건이 민족을 재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 보자.



▲ 10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



◀ 태조 왕건상(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왕건릉(개성) 청동으로 된 태조 왕건상은 황제만이 착용하는 통천관을 쓰고 있다.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고려사』-

▲ 태조의 발해 유민 포용

→ 왕건의 진격로
* 주요 전투지
▲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해동 천하'를 내세운 고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삼국 시대 이래의 독자적 천하관을 계승하여 자국의 영토와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 지역을 '해동 천하'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중국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고, 황제국에 걸맞은 제도를 운영하였다.



천자(天子)의 따남이여, 보름달 같으셨네. 저 흰 구름 타고 하늘 위에 오르셨는가.

◀ 복녕궁주 묘지명(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속종의 딸 복녕궁주를 '천자의 따남'이라고 표현하였다.



◀ 용두사지 철당간(충북 청주) 광종의 연호인 준풍이 새겨져 있다.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고려 수창궁의 용머리상(개성) 황제를 수호하는 존재인 용의 형상을 세워 고려가 황제국임을 과시하였다.



황제 만세원 皇帝萬歲願

▶ 하남 교산동 마애 약사여래 좌상(경기 하남) 고려 경종 때 제작된 것으로, 부처 옆에 황제(경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국가 기틀의 확립

태조(918~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족 융합책: 정략결혼 • 민생 안정책: *취민유도 • 호족 견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 복진 정책: 서경 중시, 거란 배격
광종(949~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권 강화, 호족 세력 억압: 과거제, 노비안검법 • 백관 공복 제정 • 송과 수교
성종(98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통치 체제 정비 •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 3성 6부제 실시, 국가감 설치 • 12목에 지방관 파견

통치 체제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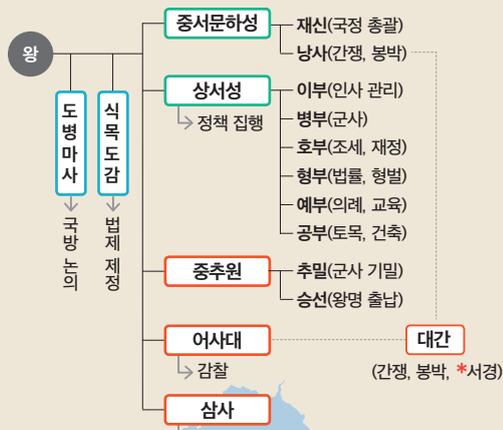
02

고려는 3성 6부제에 바탕을 둔 중앙 통치 조직과 5도 양계의 지방 체제를 정비하고, 왕과 재상이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가는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고 학문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문치주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서경**
관리 임명, 법률 제정 등에 관하여 그 가부를 심사, 동의하는 제도

활동 10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재신, 추밀)으로 구성된 국정 운영의 최고 합의 기구는 무엇인가?

■ 중앙 정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 중앙 통치 조직 당의 3성 6부제를 토대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다.



▲ 지방 행정 조직 수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은 주군, 주현 수령의 통제 아래 향리가 조세, 공물 징수와 요역 징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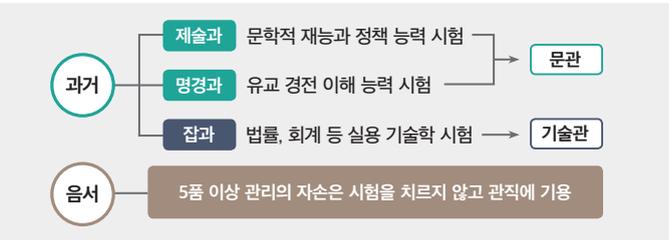
▲ 다인철소 유물과 유적(충북 충주) 일반 군현 외에도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그중 소는 금, 은, 철, 종이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 지역이었다.

▲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5도(일반 행정 구역) 양계(군사 행정 구역)와 경기, 3경 등으로 편성되었다. 도호부의 위치는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 교육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



▲ 교육 기관 유교 교육과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 관리 선발 제도 문관을 선발하는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 관복 유물(경북 안동 태사묘) 고려 관리가 쓰던 복두, 허리띠, 가죽신이다.



▲ 장양수 흥패(과거 급제 문서) 과거제의 시행은 신라의 골품제와 달리 개인의 학문 능력이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 질서의 변동과 고려의 대응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고려는 친송 복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 여진 등 북방 민족과의 갈등을 군사적 대결이나 외교적 대응으로 극복해 나갔다.

동아시아사 99쪽 03

*** 별무반**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매번 기병에게 패하자 만든 특수군으로,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군인 항미군으로 편성되었다.

*** 척경입비도**

윤관이 동북 9성을 개척한 후 고려의 국경임을 알려 주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조선 후기에 그린 것이다.

활동 11

고려가 거란의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형성된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해 보자.

01

거란의 침공과 격퇴

960 송 건국
962 송과 수교
993 거란 1차 침공 서희의 외교 담판 → 강동 6주 확보
1009 강조의 정변
1010 거란 2차 침공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강화
1018 거란 3차 침공
1019 귀주 대첩 → 고려-송-요의 세력 균형, 평화 유지
1033 천리장성 축조 (~1044)

▲ 10~12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
고려는 거란, 여진과 군사적으로 대결했지만, 교류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 서희의 외교 담판(민족 기록화)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거란 침공 격퇴 결과

- 영토 확장: 강동 6주 획득, 천리장성 축조
- 국제 정세: 고려·송·요 삼국의 세력 균형 → 평화 유지

시기	10~11세기	12세기
고려의 대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진 정책 추진, 요(거란) 배격 친송 정책 추진 요(거란)의 침공 격퇴 → 고려와 요의 국교 수립, 상호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여진) 건국 → 요(거란) 멸망, 북송 멸망(남송 성립) 고려는 금에 사대 외교

요(거란) 귀주 대첩 (1019, 강감찬)
천리장성
여진
고려
서희의 외교 담판(993)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공(993)
거란의 2차 침공(1010~1011)
거란의 3차 침공(1018~1019)

▶ 강감찬 동상 (서울 권역)

여진과의 관계

1107 윤관, 동북 9성 축조
1115 금 건국
1125 금, 고려에 사대 요구
1126 이자겸의 난
1127 북송 멸망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70 무신 정변

두만강 유역설
길주 이남설
함흥평야 일대설
9성의 위치
※ 미확인된 9성: 공원진, 통태진, 승녕진, 진양진

▲ 윤관의 동북 9성 개척 여진이 국경을 자주 침범하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9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수비가 어렵고 여진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1년 만에 돌려주었다.

▲ *척경입비도(『북관유적도첩』, 고려대박물관)

인종 4년 대부분의 신하들은 사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옛날의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입니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고려사』-

▲ 금에 대한 사대 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문벌 사회의 성립과 변천

02

I 문벌 사회의 성립

중앙 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여러 대를 거치며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문벌이 형성되었다. 문벌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이를 둘러싼 지배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다.

***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정한다는 의미이다.

활동 12
문벌 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벌

- 정치: 과거, 음서로 관직 진출
- 경제: 국가로부터 토지, 녹봉을 지급 받음, 대토지 소유
- 사회: 왕실, 다른 문벌과 중첩된 혼인으로 결속
- 대표 가문: 인주(경원) 이씨, 광산 김씨, 파평 윤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경주 김씨, 경주 최씨, 진주 강씨, 평산 박씨 등

▲ 문벌의 형성 그 특징 문벌은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가문이지만 관료 제도를 벗어난 특권은 없었다. 따라서 문벌은 귀족이 아닌 관료적 성격을 지녔다.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에 그 인근의 백성을 모아 여러 종류의 나무와 이채로운 꽃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괴석을 사용해 섬돌을 만들었다. 어느 날 왕이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누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고려사』-

▲ 문벌의 호화로운 생활



▲ '이자겸 대란(일부, 리움미술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고려 지배층의 모습을 담고 있다.

II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대 문종

- 인예 태후(이자연의 장녀)
- 인경 현비(이자연의 2녀)
- 인절 현비(이자연의 3녀)

12대 순종

- 장경 궁주(이호의 딸)

13대 선종

- 사숙 태후(이석의 딸)

14대 현종

15대 숙종

- 명의 태후(유씨)

16대 예종

- 문경 태후(이자겸의 딸)
- 페비 이씨(이자겸의 3녀)
- 17대 인종
- 페비 이씨(이자겸의 4녀)

— 직계 관계
— 혼인 관계
이서, 이호: 이자연의 자(子)
이자겸: 이호의 자(子)

서경 천도 운동(1135)
국호: 대위
연호: 천개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세력 범위
묘청의 공격
토벌군의 진로
주요 전투지

▲ 이자겸 가문과 왕실의 혼인 관계 이자겸은 여러 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그 권세가 왕실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이에 인종이 제거하려 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구분	개경파	서경파
중심 세력	개경의 문벌 귀족 (김부식)	묘청, 서경 출신 관료 (정지상)
사상	보수적 유교 사상	풍수지리설
역사 인식	신라 계승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
대외 정책	금의 사대 요구 수용	*칭제 건원, 금국 정벌 주장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주변의 36개 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고려사』-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 관계

▲ 묘청의 서경 천도 주장 묘청 등 서경 세력은 개경파의 반발로 천도가 좌절되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대화궁 터에서 발견된 유물 묘청의 건으로 서경에 지은 궁궐의 터에서 발견되었다.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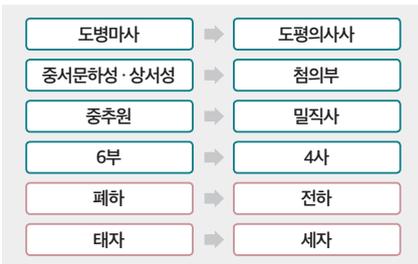
03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14세기 중엽 한족의 반란으로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 * 정동행성**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 원정 실패 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다가 공민왕 때 폐지되었다.
- * 전민변정도감**
'전민(田民)'은 토지와 백성, '변정(辨整)'은 분별하여 정리한다는 뜻이며, '도감'은 임시 관청이다.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을 조사하여 해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 남송군**
원이 남송을 멸망시킨 후 징발한 군대이다.

활동 14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성공하지 못한 까닭을 당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해 보자.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 원 간섭기 관제와 왕실 용어의 격하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관제와 왕실 용어가 격하되었고, 왕의 칭호에도 원에 충성하라는 뜻으로 '충(忠)' 자를 붙였다.

▼ 권문세족의 횡포 권문세족은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대농장을 소유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았다.

이인임 등은 자신들이 거느리는 나쁜 중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몰부레나무로 때리고 이를 빼앗았다. 땅 주인이 관가의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다. -『고려사절요』-

근래 양민을 억박질러 천민으로 삼은 자가 많다. 해당 관청은 노비 문서가 없는 자와 거짓으로 꾸민 자를 조사하여 벌주라. -『고려사절요』-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 예전에는 성균관 학생이 수십 명에 불과하던 이색이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서를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토론하였다. 이에 학자가 많이 모여 성리학이 왕성해졌다. -『고려사』-

▲ 성균관 중건 고려 말 국자감(국학)은 순수 유학 교육 기관인 성균관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신진 사대부가 양성되었다.

정치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 사대부: 사(士, 학자) + 대부(大夫, 관료) → 학문적 소양을 갖춘 관료층
경제	대부분 중소 지주
사상	성리학 수용 → 고려 말의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 추구, 불교의 폐단에 비판적

▲ 신진 사대부의 성격

신진 사대부의 분화

은건파 사대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며 개혁할 것을 주장 (이색, 정몽주)	혁명파 사대부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주장 (정도전, 남은)
---	--

◀ 정몽주(국립중앙박물관) 새 왕조의 개창을 끝까지 반대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몽골(원)의 침공 경로와 이색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안우·김득배·이방실의 홍건적 격파(1360)
 정세운·최영·이성계의 홍건적 격파(1362)
 최영의 황산 대첩 (1376)
 최무선의 진포 대첩 (1380)
 이성계의 황산 대첩 (1380)
 정지의 관음포 대첩 (1383)
 박위의 쓰시마섬 토벌 (1389)

홍건적의 침공 (red arrow)
 왜구의 침공 (blue arrow)

▲ 홍건적과 왜구의 침공과 격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고려의 사회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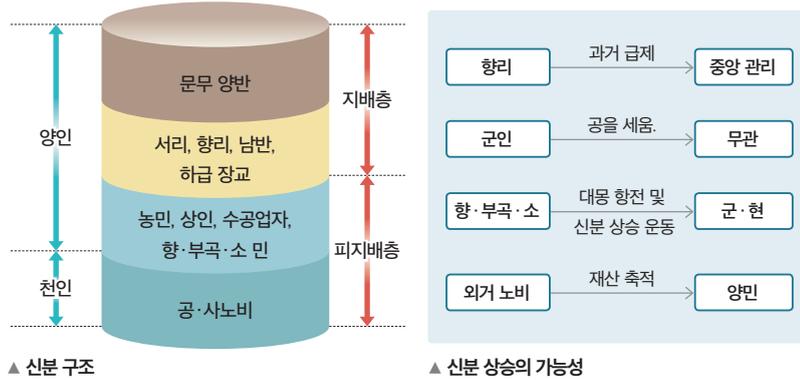
고려의 신분 제도와 사회 모습 01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양인은 지배층을 이루는 *정호와 피지배층인 *백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신라 골품제와 달리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 지위는 사회 활동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하였다.

***정호와 백정**

정호는 관료, 군인, 향리 등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부여받은 지배 계층이며, 백정은 나라에 특정한 직역을 지지 않은 일반 백성으로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신분 제도



▲ 신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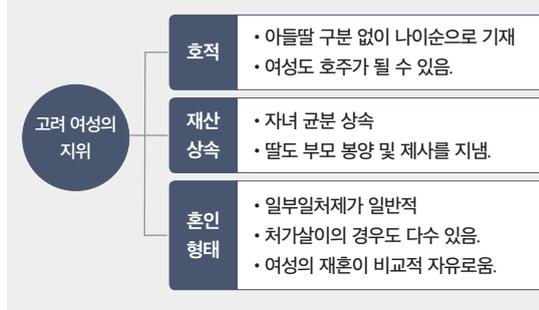
▲ 신분 상승의 가능성

고려에 귀화한 사람들

▶ **채인범 묘지명(국립중앙박물관)**
송의 학자인 채인범은 광종 때 고려에 귀화하여 정4품 벼슬을 지냈다.

거란에서 항복한 포로 수만 명 중 장인이 열에 하나꼴이다. 고려는 그중 정교한 솜씨를 가진 사람을 뽑아 왕부(王府)에 머물게 하였다.
- 서경, 『산화봉사고려도경』 -

여성의 지위



▶ **조반 초상(우)과 조반 부인 초상(좌,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말의 관리였던 조반과 그의 부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그렸다.



유교의 발전과 역사서 편찬 02

유교는 건국 초부터 정치 이념으로 자리잡고 꾸준히 발전하였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이 수용되어 사회 개혁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한편, 유교적 역사 서술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시기별로 다양한 역사 인식을 지닌 사서가 편찬되었다.

***기전체**

본기(제왕), 세가(제후), 열전(인물), 지(주제), 표(연표) 등으로 구성되는 역사 서술 방식이다.



▲ **성균관(개성)** 고려의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은 고려 말 성균관으로 개편되었다.

▶ **최충(흥천 노동서원)** 관직에서 은퇴한 후 9재 학당을 세워 많은 제자(문헌공도)를 양성하였다.

◀ **안향(영주 소수서원)** 충렬왕 때 성리학을 고려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초기	중기	무신 집권기	원 간섭기
유학	특징: 자주적, 주체적 학자: 최승로 교육: 관학 중심(국자감)	특징: 보수적 학자: 최종, 김부식 교육: 사학 12도 융성 → 관학 위축	유학 침체	특징: 성리학 수용 학자: 안향, 이색, 정몽주, 정도전 교육: 성균관
역사서	실록 편찬(고려 말까지 지속) → 현존하지 않음.	『삼국사기』(김부식):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전체 형식	『동명왕편』(이규보): 고구려 계승 의식	『삼국유사』(일연), 『제왕운기』(이승휴): 단군을 강조 『사략』(이체한): 성리학적 사관 반영(정통과 대의명분 강조)

거란의 군사들이 개경을 함락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니 서적이 모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 황주량은 조서를 받들어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7대 사적을 찬집하여 모두 36권을 바쳤다.
- 『고려사』 -

▲ 『7대 실록』 편찬



▲ 『삼국사기』(김부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 『삼국유사』(일연) 『삼국사기』에 없는 단군 신화와 가야사, 불교 관련 설화가 실려 있다.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의 유행

03

고려 시대에는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져 유행하였다. 이 중 불교는 모든 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로서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였다.

활동 15

의천과 지눌의 불교 통합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다양한 사상의 유행

짐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 군신이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훈요10조」 『고려사』-



◀ 불교 행사인 연등회

▼ 도교 인물모양 청자 주전자(국립중앙박물관) 도사 또는 도교 전설에 나오는 서왕모로 추정된다.



▲ 불교와 토속 신앙이 결합된 팔관회(대구 밀레니엄 팔관회 재현 모습)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송악 길지설(신라 말)

고려 건국에 영향

서경 길지설(고려 초)

북진 정책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영향

남경 길지설(중기 이후)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

▲ 풍수지리설의 유행과 변천

불교 통합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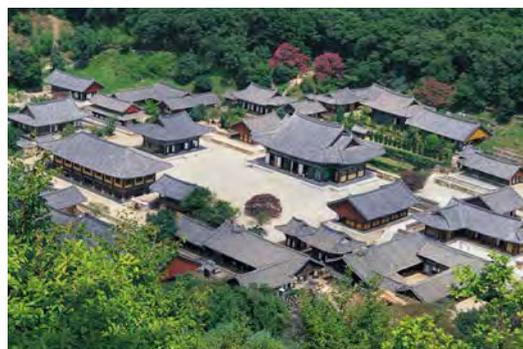
대각국사 의천

- 해동 천태종 창시
-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통합
- 교관겸수 주장



보조국사 지눌

- 수선사 결사 조직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통합
- 돈오점수, 정혜쌍수 주장



▲ 송광사(전남 순천) 조계종의 대표적 사찰로, 고려 후기에는 수선사라고 하였다. 지눌은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 일치의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불교 예술

- 탑**
 - 개성 있고 다양한 탑 제작
 - 5층, 7층, 다각다층탑
- 불상**
 - 신라 양식 일부 계승
 - 지방의 개성 반영
 - 대형 불상 제작
- 불화**
 - 귀족적(화려하고 섬세함)
 - 다양한 안료와 금가루 사용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충남 논산)



높이: 약 17.8m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국립중앙박물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는 철불 제작이 유행하였다.



높이: 약 2.8m

높이: 약 2.9m

▼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경북 영주)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높이: 약 2.9m

높이: 약 3.4m

▶ 여주 고달사지 승탑(경기 여주)



높이: 약 7.9m

▲ 개성 불일사 오층 석탑(개성)



높이: 약 15.2m

▲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강원 평창)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국립중앙박물관) 원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대리석 탑이다.

높이: 약 13.5m



▲ 「수월관음도」(리움미술관) 불화는 고려 불교의 대표적 예술품이다.

조선 통치 체제의 특징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 이념

01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한 이성계(신흥 무인 세력)와 정도전 등 혁명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동아시아사 101쪽 06

*** 과전법**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조선의 건국

- 1388 위화도 회군
- 1391 전제 개혁 (*과전법 체제의 성립)
- 1392 조선 건국
- 1394 한양 천도

북원 (1368~1388)
원 세력 축출

여진

홍건적 침입 (1359, 1361)

철령위 설치 통보 (1388)

요동 정벌 출병 (1388)

고려 (918~1392)

왜구 침입

일본

명 (1368~1644)
베이징

14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와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가 정치적·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계(전북 전주 경기전, 좌)와 정도전(경기 평택 문헌사, 우)
조선이란 국호에는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요즈음 토지 경병이 심해져 간혹한 무리가 주와 군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산천(山川)을 경계로 삼아 그 땅을 조업전(祖業田)이라 부르며 서로 빼앗으니, 한 땅에 주인이 대어섯 명이 넘고 1년에 세금을 여덟, 아홉 차례나 거두어 간다.
- 『고려사』 -

▲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 전제 개혁은 고려 말 권문세족이 차지한 광대한 농장(사전)을 혁파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고, 신진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 경복궁 근정전(서울 종로) 태조는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인 한양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유교적 통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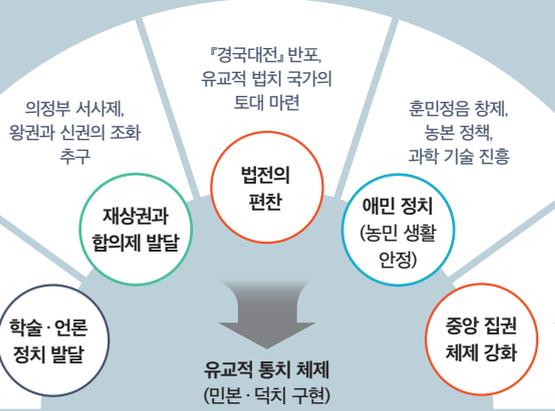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 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좋은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 정도전, 『조선경국전』 -

▲ 재상의 역할

천하의 득실과 백성을 이해하고 사직의 모든 일을 간성하고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할 수 있으며, 대간만이 말할 수 있으니 대간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정도전, 『삼봉집』 -

▲ 대간의 역할

경연 제도, 서경권, 언관의 활동



▲ 『경국대전』(국립중앙도서관)



▲ 『훈민정음』(안해본, 서강대 도서관)



▶ 측우기와 측우대 (조선 후기, 기상청 소장) 측우기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되었다.

통치 체제의 정비

02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

태조	한양 천도, 재상 중심의 정치(정도전)
태종	왕권 강화(6조 직계제, 사병 혁파), 호패법 실시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설치, 훈민정음 창제, 쓰시마섬 토벌, 4군 6진 개척)
세조	왕권 강화(6조 직계제)
성종	통치 체제의 완성(『경국대전』 반포)



▲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는 의정부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호패(국립중앙박물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발급되어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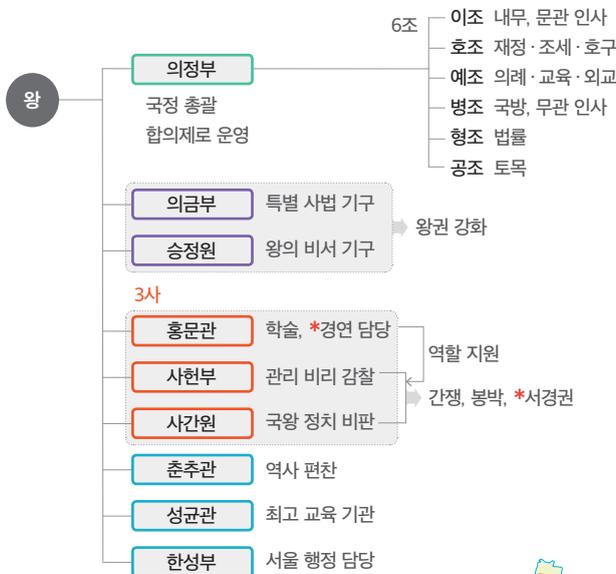
조선의 중앙 통치 조직은 민본과 덕치를 강조하는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고려와 달리 점차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 경연**
국왕과 대신들이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며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던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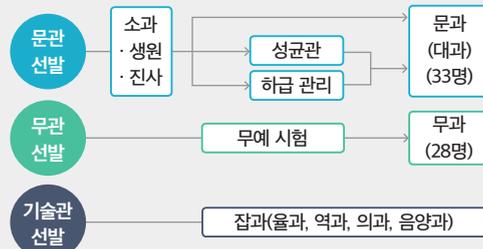
*** 서경권**
5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 사간원에 서 후보자의 경력과 신분 등을 조사하여 가부를 동의하던 권한이다.

활동 16
조선의 통치 체제가 고려와 비교하여 달라진 측면을 찾아보자.

중앙 정치 기구



관리 선발 제도



▲ 조선은 고려와 달리 무과를 실시하여 문무 양반 제도를 확립하였다. 과거 응시는 양인 이상이 가능하였으나, 문과는 사족(士族)이 거의 독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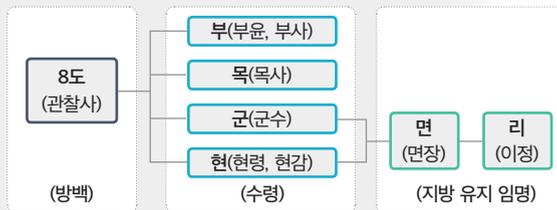
▼ 성균관 대성전(문묘, 서울 종로) 문묘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건립되었다.



지방 행정 제도



▼ 봉수대(북원, 서울 남산) 봉수제는 불과 연기로 국경 지대의 긴급 사태를 중앙에 신속히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 지방 행정 조직

고려	조선
5도 양계(안찰사, 병마사)	8도(관찰사)
다수의 속현 존재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면리제 실시
향리: 지방 행정 담당	향리: 지위 격하(수령 보좌)
향, 부곡, 소 존재	향, 부곡, 소 소멸

▲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

■ 왜란 이후 비변사의 기능 변화

16세기 초	임진왜란 이후	19세기 후반
국방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 기구로 설치	비변사의 기능 강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 기구 → 의정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 국정 농단 · 흥선 대원군, 비변사 축소 · 폐지

공론 정치와 정치 운영의 변화

사람의 성장과 봉당 정치의 시작

01

사람은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언론 활동과 향촌 자치를 중시하였다. 선조 때 정치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은 봉당을 형성하고 *공론을 앞세운 정치를 전개하였다.

*** 공론**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형성된 의견을 말한다.

*** 사회**
훈구와 사림의 대립, 훈구 사이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사림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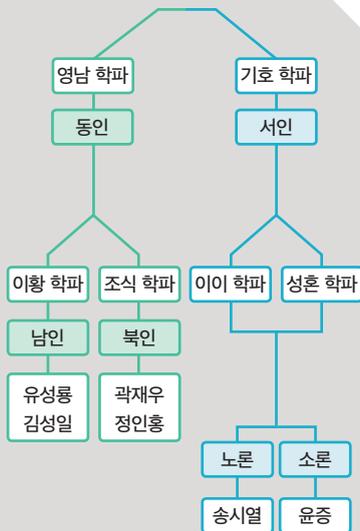
활동 17

사림이 사회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16세기의 정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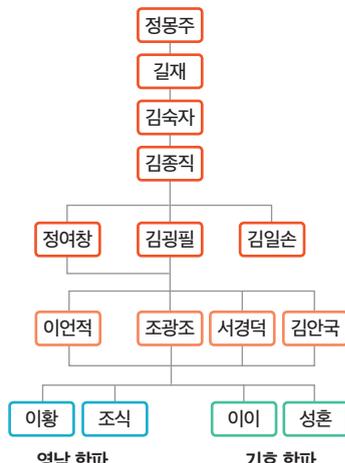
- 15세기 말
사림의 대두
김종직 이후 중앙 정계에 적극 진출함.
- 16세기 전반
훈구와 사림의 대립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4차례 *사화가 발생하여 사림이 큰 타격을 받음.
- 16세기 후반
사림의 정치 주도권 장악
사림은 서원, 향약 등을 통해 꾸준히 세력을 확대함.
- 봉당 정치의 시작**
사림 간의 분열과 대립이 시작됨.

봉당 정치의 전개



훈구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력
→ 고위 관직 독점, 정치권력 장악
→ 농장 확대, 상업 활동에 관여해 재산 축적, 비리와 부정으로 백성의 지탄을 받음.

사림
조선 건국에 불참한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
→ 15세기 말부터 중앙 정계에 본격 진출
→ 3사에서 학술·언론 담당, 훈구 세력 비판, 견제



▲ 사림의 계보



▲ 서원과 향약 서원은 사림 세력의 근거지로,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며 학문을 연구하고 자제를 교육하는 기능을 지녔다. 향약은 유교 윤리의 보급과 상부상조를 위한 향촌 자치의 규약으로, 16세기 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 영주 소수서원(경북 영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에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 공인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로 서로 사귈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하는 일은 서로 꾸짖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 향약의 4대 덕목

봉당이 갈라진 것은 정책과 학문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지하려는 양반 수는 늘어나면서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어.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02

붕당 정치는 상대 붕당의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변질되어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에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적극 실시하며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에는 소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 정치가 이어졌다.

*** 한국**
정국을 주도하던 붕당이 급격히 바뀌는 현상이다. 정치 보복이 이어지며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탕평**
정치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붕당 정치 전개

붕당 정치 변질

탕평책 실시

세도 정치

- 1567 선조 **붕당 정치 시작**
- 1608 광해군 **북인 집권**
- 1623 인조 **북인 몰락, 서인 집권, 남인 참여**
- 1649 효종 **북벌 운동**
- 1659 현종 **예송 서인과 남인 대립**
- 1674 숙종 ***한국 남인 몰락,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

1720 경종

- 1724 영조 ***탕평파 육성** **정쟁 억제, 탕평비 건립(1742)**

- 1776 정조 **노론, 남인, 소론 고르게 등용**

1800 순조

왕의 외척 등 몇몇 가문이 권력 독점 → 정치 기강 문란 (매관매직 성행)

1863

왜란 이후의 정치 변화



지금 열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이와 다르지 않다. 관직은 적은데 싸야 할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이익, 『곽우록』 -

▲ **정쟁의 발생** 붕당 정치가 치열한 정쟁으로 이어진 까닭은 양반의 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 관직과 그에 따른 권력, 경제력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송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인조의 계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두 차례 벌인 논쟁이다. 서인은 왕실 의례도 사대부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왕권 강화를 추구한 남인은 왕실의 의례는 사대부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인의 영수, 송시열(국립중앙박물관)과 남인의 영수, 허목(국립춘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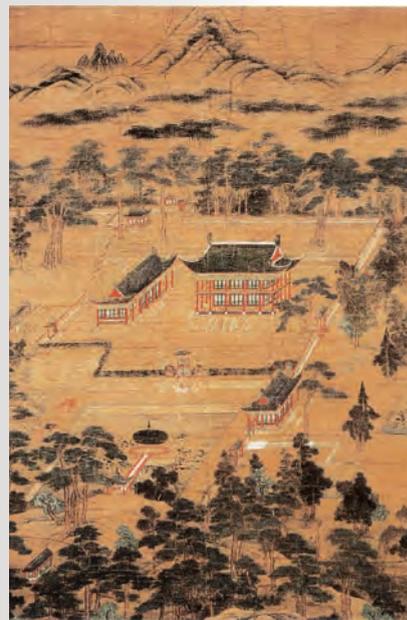
영조	정조
- 서원 정리	- 화성 축조
- 균역법 실시	- 규장각, 장용영 설치
- 신문고 부활	→ 왕권 강화

▲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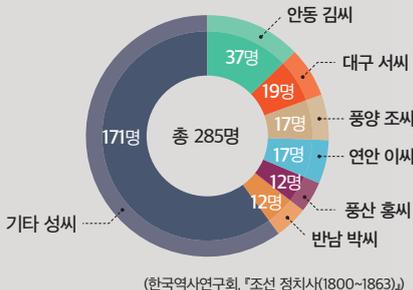
▼ **화성**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가지고, 동서양의 축성술이 집약된 과학적·실용적 구조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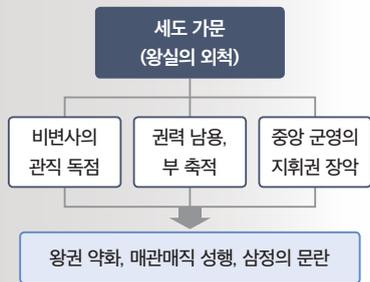
▲ **탕평비(성균관대학교)** “두루 화합하여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한편에 치우쳐 두루 화합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쓰여 있다.



▲ **‘규장각도’(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왕실 도서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정조의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 **세도 정치기 비변사 요직 역임자 수** 세도 가문이 비변사 요직과 병권을 장악하면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 **세도 정치의 폐단**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호란 발발

03

왜란으로 조선과 명의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급성장한 만주의 여진족은 후금(청)을 세웠다. 후금(청)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하였고, 조선은 척화 주전론에 따라 항전하였으나 굴복하여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아시아사 106쪽 02



주화론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면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 최명길, 『지천집』 -

척화론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청)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명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 『인조실록』 -

▲ 주화론과 척화론 주화론(화친 주장)은 국가와 백성의 안전을 위해 일단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척화론(화친 배척)은 명에 의리를 지켜야 하며, 오랑캐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삼전도비(서울 송파)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외세의 침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굴욕의 역사를 보여 준다.

▼ 남한산성(경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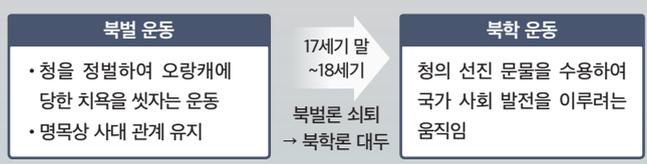


양 난 이후의 대외 관계

04

양 난 이후 조선은 일본, 청과 우호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다. 한때 존화양이 사상을 앞세워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사 107쪽 03



▲ 「조선 통신사 내조도(일본 고베시립 미술관)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는 외교 사절인 조선 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졌다.

▼ 안용복 동상(부산 수영)



활동 18
왜란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 보자.

▶ 「연행도」(김홍도, 송실대기독 교박물관) 베이징에 도착한 조선 사절의 모습이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경제 변화와 수취 체제의 개편

01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구분	배경	개편	주요 내용
전세	왜란 후 농토의 황폐화 농민 생활 피해	영정법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
공납	*방납의 폐단	대동법	공납의 전세화(민호에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에 쌀, 면포, 동전 등으로 부과)
군역	농민의 군포 부담 증가 (황구첨정, 백골징포)	군역법	군포 2필 → 1필 *결작, *선무군관포 등으로 부족액 보충

왜란 이후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정법(전세), 대동법(공납), 군역법(군역) 등으로 조세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 방납**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농민 대신 공물을 납부한 후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의 공납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결작**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씩 징수한 것이다.

*** 선무군관포**
일부 부유층에게 선무군관의 칭호를 주고 매년 군포 1필을 거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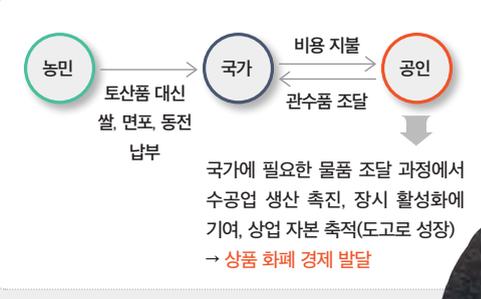
현재 10여 만 호로써 50만 호가 저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죽거나 도망을 가면, 그 몫을 채우기 위해 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조실록』-

▲ **군역의 폐단** 죽은 자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어 농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안도, 함경도에서는 조세를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국방비,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대동법의 영향



대동법이란 공납을 전세로 바꿔 지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지요.



▲ 김국(국립현대미술관)

▲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농업 생산력의 증대

02

모내기법의 확대	상업적 농업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절감 → 광작 유행 수확량 증대 수리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의 상품화 상품 작물 재배 (담배, 인삼, 채소류)

영향
 • 농업 생산력 증대
 • 농민층 분화: (일부) 부농층 성장 (다수) 광작지 상인 → 영세 상인, 임노동자

조선 후기 농업의 변화

직파법으로 불과 10두락을 농사짓던 자가 모내기를 하면 족히 20~40두락을 지을 수 있으니 광작(廣作)하는 자가 이미 많습니다. -『일성록』-

▲ **광작의 성행** 모내기로 수확량이 늘었지만 노동력은 크게 절감되어 광작이 가능해졌다.

대도시 주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는 4두락의 밭에서 수만 전(수백 냥)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서북 지방의 담배밭, 관북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등에서는 좋은 논에 비해 수도 이익이 열 배나 된다. -정약용, 『경세유표』-

▲ **상품 작물의 재배** 벼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농민이 부농층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

왜란 이후 개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경지 면적이 빠르게 늘어났다. 또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광작이 가능해졌으며, 상품 작물도 널리 재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었고, 부농층으로 성장하는 농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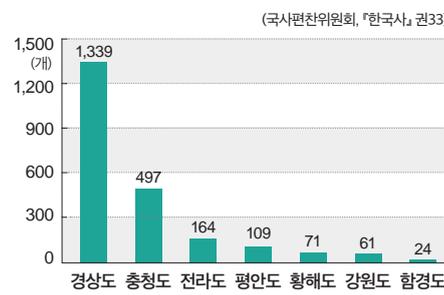
활동 19
 조선 후기에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 「모내기」(경기도), 일부, 독일 게르투드클라센 모내기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므로 두레, 품앗이 등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되었다.



▲ 「담배 썰기」(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 **보의 개수(18세기 말~19세기 초)** 수리 시설의 확충과 소를 이용한 쟁기 사용의 확대 등 농경 기술의 발달도 농업 생산력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 「논갈이」(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03

왜란 이후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활동하는 수공업자(납포장)가 늘어나면서 관영 수공업은 점차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또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면서 은광, 금광 등의 개발이 늘어났다.

*** 선대제 수공업**
공인, 사상 등에게 물품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

조선 전기 — 관영 수공업 중심
국가 통제: 장인 등록제 실시 → 수공업자(장인)를 관청에 소속시켜 부역 노동으로 관수품 생산

조선 후기 — 민영 수공업 발달
• 변화: 납포장 성장 → 장인 등록제 폐지(18세기 말)
• 수공업 형태
 *선대제 수공업: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음.
 독립 수공업: 스스로 제품을 생산, 판매 → 부 축적



▲ '대장간'(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조정에서 은점(銀店) 설치를 허가해 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는 농민이 모여 살며 은을 캐서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물주에게 돌리면 공사 간에 유익할 것입니다.
- 우정규, 『경제야언』 -



▲ '가마점'(김준근,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철광석을 제련해 주물을 하는 모습이다.

▲ 광산의 개발 광산은 덕대(광산 경영인)가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혈주(채굴업자)와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나타났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04

조선 후기에는 국내 상업과 대외 무역의 발달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부를 축적한 상업 자본가(도고)가 성장하였다.

*** 개시 무역**
국가가 수량, 품목 등을 통제하며 공식적으로 허용한 무역이다.

*** 후시 무역**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난전은 허가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나 가게를 말한다.

▼ 국내 상업과 대외 무역의 발달 포구나 교통의 중심지는 장시가 변하면서 상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국경 지대에서는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열렸는데, 만상·송상·내상 등이 참여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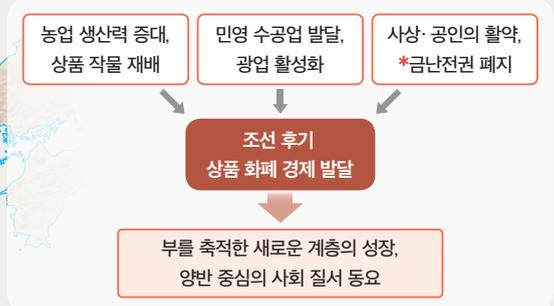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영향

- 대동법 실시 → 공인의 활동
- 장시·포구의 상거래 활성화 → 사상의 성장
- 대외 무역의 발달(*개시 무역, *후시 무역)
- 화폐 유통의 확대(상평통보, 어음, 환 사용)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상업 자본의 축적 (도고의 성장)

(허생은)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두 배 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지 얼마 아니 되어서 두 배 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치렀다.
- 박지원, 『허생전』 -

▲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허생과 같이 큰 자본을 운용해 부를 축적하는 도고(상업 자본가)가 성장하였다.



▲ 상품 화폐 경제 발달과 사회 변화



◀ '보부상'(권용정, 간송미술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상으로, 장날에 맞춰 이동하면서 각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의 유통량이 늘면서 동전뿐 아니라, 어음, 환 등 신용 화폐도 등장하였다.

양반 중심 사회 질서의 변화

사회 질서의 변화

조선 후기에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일부 서민층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였다. 한편, 19세기에 세도 정치의 모순과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 사회 변혁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 서얼**
양반의 양인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와 천민 출신 첩에게서 태어난 알자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 납속**
나라에 곡물을 바치는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신분을 올려 주는 일

*** 삼정**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전정(토지세), 군정(군포), 환곡을 말한다. 빈민을 구제하던 환곡은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활동 20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적극 추구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01

양반 중심 신분 질서의 확립



◀ 「경직도」 일부(작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노비들이 주인집에서 곡식을 털고, 지분을 이는 모습이다. 노비는 재산처럼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양반 이후 신분제 동요

(정석중,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연구』)

연도	양반 (%)	중인 (%)	상민 (%)	노비 (%)
1729	26.3	59.8	13.9	0.0
1765	41	57	2	0.0
1804	53.5	45.6	0.9	0.0
1867	65.5	34	0.5	0.0

- 양반층의 분화** (증가):
 - 별벌 양반: 정치권력을 차지
 - 향반: 향촌 사회에서 위세 유지
 - 잔반: 몰락 양반
- 서민층의 성장** (감소):
 - 부농층, 상업 자본가, 독립 수공업자 등
- 노비** (감소):
 - 군공, *납속, 도망
 - 공노비 6만여 명 해방(19세기 초)

▶ 돈을 받고 노비를 풀어 준 문서(국립민속박물관)

◀ 공명철(국사편찬위원회) 이름을 적지 않고 발급해 준 관직 임명장으로, 양반 신분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 변혁의 움직임

국내 상황
세도 정치, 지방관과 아전의 농민 수탈
→ *삼정의 문란
→ 전국적 농민 봉기 발생

서양 세력의 접근
이양선의 출몰, 천주교 교세 확대 → 위기의식 고조

▲ 19세기의 시대 상황

1. 세미(稅米)는 항상 (돈으로) 7냥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2. 각종 군포를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3.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5. 아전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할 것.

- 송근수, 『용호한록』 -

▶ 「순무영진도」 일부(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관군이 정주성을 에워싼 모습이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실학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는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속에서 현실 모순을 극복하고 부국안민(富國安民)을 이룩하려는 실용적·실증적 개혁 사상인 실학이 대두하였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다라 안자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쩍 뛰여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나이가에 망정이지
 에헐질 뵈 하래라.

-『청구영언』-

▲ **사실시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현실을 풍자하였다.



▲ 『홍길동전』(좌)과 『춘향전』(우, 국립중앙도서관) 한글 소설은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등 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서당도」(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에는 서민 경제의 발전과 함께 서민의 지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서당 교육이 널리 활성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민이 문화 예술 활동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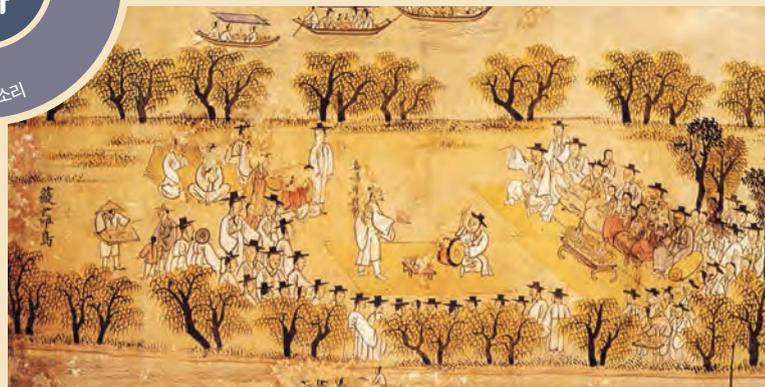


▲ 「까치 호랑이」(작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민간의 주거 공간을 소박하게 장식하는 민화는 무병장수나 부귀공명을 염원하는 기원을 담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화가에 의해 많이 그려졌다.



◀ 봉산탈춤 취발이

▲ 통영 오광대놀이 산대놀이라고도 불리는 탈춤은 양반의 위선과 사회 모순을 꼬집는 내용이 많았다. 사진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 「평양도십폭병풍」에 그려진 판소리 모습(서울대박물관) 판소리는 서민층은 물론 양반층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실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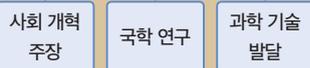
■ 실학의 등장과 그 의의

성리학

- 경제적·사회적 변화 억압
-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
- 중국 중심의 세계관

실학

- 현실 개혁 추구
-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극복
- 과학적, 실증적 학풍(실사구시)



■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토지 제도를 개혁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 구역 등 국가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전론)

그러려면 농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주고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전론)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해서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토지 개혁도 필요하지만 상공업을 진흥하는 것이 더 우선이죠. 그러려면 일단 사농공상이 평등해져야 합니다.

화폐도 적극 유통하고, 수레와 선박을 상품 유통에 활용해야 해요. 놀고먹는 양반들도 없어야 합니다.

청의 문물을 더욱 적극 수용해야 해요. 그리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여 상공업을 진흥해야 합니다.